

PA-93

**파종시기가 몇몇 들깨 품종의 생육특성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김영상<sup>1\*</sup>, 김기현<sup>1</sup>, 윤철구<sup>1</sup>, 이경자<sup>1</sup>, 김익제<sup>1</sup>, 홍성택<sup>1</sup>, 이명희<sup>2</sup><sup>1</sup>충청북도농업기술원<sup>2</sup>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생산기술개발과**[서론]**

들깨는 쌍떡잎 식물 꿀풀과의 한해살이로 인도와 중국 중남부 등이 원산지이며, 한국에서는 신라시대에 참깨와 함께 재배한 기록으로 보아 옛날부터 전국적으로 재배된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품종은 없으나 열매의 형태에 따라 몇 종으로 나누는데 한국에서는 대부분 갈색종을 재배하고 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α*-linolenic acid)를 약 60% 함유하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충청북도의 들깨 재배면적은 5,919ha로 전국 43,352ha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파종시기가 몇몇 들깨 품종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지역에 적합한 품종을 추천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장소는 충청북도의 북부인 제천지역에서 다유, 새엽실 등 10 품종을 대상으로 파종시기를 6월 상순(조기 파종), 6월 중순(적기 파종), 7월 초순(만기 파종) 3시기를 두었다. 시비량은 토양검정에 따라 검정시비를 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 복으로 처리하였다. 생육상황 및 수량구성 요소 및 수량 등은 농촌진흥청 작물별 표준조사기준에 따랐다.

**[결과 및 고찰]**

들깨 파종시기에 따른 개화기는 6월 21일 적기에 비하여 6월 4일 파종에서는 다실 품종이 8월 20일로 가장 빨랐으며, 대실, 새엽실 품종이 9월 10일로 가장 늦었다. 성숙기간은 다실, 안유, 품종이 각각 31일, 39일로 길었다. 다실품종을 제외하고는 품종별로 개화기는 파종시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들깨 수확기에 생육특성 및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엽색도는 29.2~40.0으로 파종시기와 품종에 상관없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유효 분지수는 6월 21일 > 6월 4일 > 7월 6일 순으로 많았다. 품종 특성 중 천립중은 백진이 5.5g 이상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천립중이 3g 이상인 품종은 파종시기에 따라 달랐는데 6월 4일 파종에서는 대실, 백진, 새엽실이었고, 6월 21일 파종에서는 다유, 단조, 대실, 백진, 새엽실이었으며, 7월 6일 파종에서는 다실, 다유, 단조, 대실, 백진 안유이었다. 들깨 수량은 조사한 결과 10a 당 110kg 이상인 품종은 6월 4일 파종에서는 들향(138)이었고, 6월 21일 파종에서는 들향(128), 백진(153), 안유(143)이었으며, 7월 6일 파종에서는 단조(116), 새엽실(112)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들깨 파종시기에 따른 생육특성 및 수량은 파종시기와 품종간에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종시기와 품종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2501052019)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Corresponding author: Tel. 043-220-5571, E-mail. suanbo@korea.kr